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17-23절

Tag: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17:17-23)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여러 차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래도 요한의 기억력이 제일 많이 남아 있어서 요한복음에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열심히 가르치신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막상 성령께서 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고 기억을 더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때 그 기억력이 증거가 되어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쉽게 맞이하듯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오늘은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강림절이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16:13)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형용할 때(속성이나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진리’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생명의 영, 정의의 영,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하신 영 etc.)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과 그 내용이 일반이라는 뜻.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그곳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계시하신다는 뜻.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하신다. 미신은 동쪽으로 갔으니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서쪽으로 갔더라면 복 받았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도우시는 분.

-다만 의에 관한 한 하나님이 우선이고, 나라에 관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즉, 하나님은 가치관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하기 나름이다. 크게는 인간성도 문제가 되지만, 대개는 하기 나름이다. 관계가 그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수도 있고, 신사로 만들수도 있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진짜 거룩해 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령을 받았더라도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면 그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며 온전히 거룩해 질 수 없게 되며, 초보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다.

-그러나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는 이유는 우리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함이다.

-만약 성령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거룩성을 유지해야 성도가 된다.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심.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은, 스스로 속죄의 어린양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한다. 그래야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뜻이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인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겠다는 뜻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을 계획하셨다.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비로소 구원의 비밀이 풀어진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다.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

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 내게 주신 영광;예수님의 통치의 영광.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 내가 그들에게 주었음;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것임을 나타냄.
-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가능하게 된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17:17-23)

-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여기에서의 온전함은 인격적인 온전함이 나 도덕적인 온전함이 아니다. 다스릴 수 있는 자로서의 온전함을 뜻한다.
- 하나님-예수님-우리라는 하나됨을 이름으로 다스림의 온전함을 이룬다는 뜻이다.
-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임.
- 즉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게 됨으로 그들이 우리를 대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갑질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끔 하기 위함임.
- 기독교인들이 갑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심.
-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받는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